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3월 29일(화) 총 3매				
담당 부서	수산기술 지원센터	담당자	• 수산기술보급팀장    이의진 ☎458-7461 • 주무관    이용우 ☎458-7462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## 인천시,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개시

### - 무상 이동수리·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-

인천광역시는 도서·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·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동수리소 운영은 백령·대청, 연평·자월, 서구·강화 3개 권역에 기관 및 전기 수리업체 3개 반을 구성해 도서지역 항·포구를 직접 찾아가 무상 수리 및 점검을 실시하며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.

무상 이동수리·점검 대상 기자재는 어선용 기관(엔진, 점화플러그, 연료배관 등), 어업용 및 양식용 장비,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이고, 1인당 1회 10만원 한도 내 연 2회까지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
그동안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약 20년간 추진됐으며, 지난해에도 2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427척을 수리·점검하고 1,066건의 소규모 부품을 무상 교체했다.

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“인천은 대부분 섬 지역으로 접근성이 낮고 환경이 열악해 엔진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면 조업손실이 우려 된다” 며, “영세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” 고 말했다.

# <붙임 1> 관련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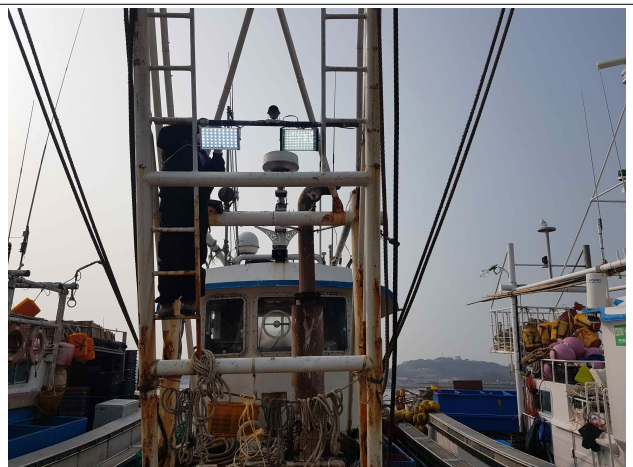
대상어선 전경



이동수리소 운영



어업용기자재 점검



소규모 부품 교체(작업등)

**참고**

**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(요지)**

**□ 사업개요**

- 사 업 비 : 90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사업기간 : 2022. 3. ~ 12.(10개월)
- 사업대상 : 3개 권역(①백령·대청, ②연평·자월, ③강화·서구)
  - 도서·벽지 등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·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어업인
- 사업내용 : 어업용 기자재\* 무상수리 및 점검  
(어선용 기관, 어업용 장비, 양식용 장비 등)

**□ 세부 추진계획(이동수리소 운영)**

- 인건비는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(2021.12.06.)에 따라 기타-고급숙련기술자를 기준으로 산정(218,680원)
- 교통비, 일비, 식비, 숙박비, 자재비, 소모품비,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
- 수리 및 부품교체비용은 당해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
(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)

※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